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오 옥 선[†]

제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살펴보고,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에서는 연령과 결혼연수, 결혼유형, 학력, 직업, 자녀수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낙관성 및 심리적 안녕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긍정적 대인관계가 무기력-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은 지역 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어머니,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 교신저자 : 오옥선,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Tel : 010-9540-0640, E-mail : sunney05@hanmail.net

서론

여성가족부(2013)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결혼이민자 15,001명 중 여성의 수는 12,531명으로 이 중 대다수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이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출신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비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출신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출신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차별, 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문화적 변화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Berry, 1997). 여기서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정과는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우울, 불안, 무기력, 위축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7; 박금주, 2008; 이선미, 이경아, 2010; 조인주, 현안나, 2012; 지은진 외, 2012). 최근 부정적 정서나 공격적 행동, 학교부적응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행동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오성배, 2005; 김이선, 김민정, 한건

수, 2006; 설동훈, 임경택, 2006; 남윤주, 이숙, 2009)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응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환경요인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은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적절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며 부모와 가족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임혁, 2010; Patterson, 1982; Chou, 2010).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건강한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정신건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자원의 활용 및 잠재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Parsons(1999)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사회적 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 향상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임파워먼트란 자신감을 증대시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기믿음과 자기 효능감을 부여하는 개념으로(Bandura, 1977) 임파워먼트의 증가는 신체적 상태 향상 및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능력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Parsons, 1999),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것은 개인 스스로 열악한 환경적 조건을 극복하고자 하

는 신념 및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응을 돕는 심리요인으로 임파워먼트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으로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추출하여 두 개의 선행요인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것이다.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야기하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낙관성은 주관적 안녕감(차경호, 김명소, 2002) 및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이영이 외, 2011). 결국 낙관성과 안녕감은 이를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할 경우 스트레스 사건에 덜 직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면했을 경우에도 긍정심리 요인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다. 일련의 과정들은 손실된 긍정적 심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Hobfoll, 2002).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형성하는 하위차원으로 자아수용(self 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을 언급한다.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판단으로 형성되는 요인으로 이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기존의 심리적 안녕감과 차별된 개념이다. 또한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개념에 착안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을 임파워먼트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

다.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은 삶의 만족도, 행복, 낙관주의, 정서적 최적의 경험 및 몰입 등(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과 함께 긍정심리학에서 다루어 온 긍정심리변인으로, 다양한 긍정심리 요인 중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이 임파워먼트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오옥선, 2013)에 근거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을 독립변수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는 점에서 긍정심리학의 주요 변인인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을 임파워먼트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향후 임파워먼트 증진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둘러싼 정신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인을 고찰하는 것은 향후 제도적 지원에 적절한 함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동시에 적응의 스트레스에 부딪히게 된다. Berry(1997)는 이러

한 현상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정의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요인으로 불안이나 우울, 고립감, 소외감, 무기력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 관련하여 역할 갈등, 언어문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가정폭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무기력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혹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설동훈 외, 2005; 김오남, 2006; 양옥경, 김연수, 2007; 김은경, 2010; 임혁, 2010; 지은진 외,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으로 직결되며(곽금주, 2008;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7; 이선미, 이경아, 2010) 나아가 다문화가정 전체의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장기화된 스트레스는 '실패'라는 상황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직면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배우자나 가족,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김오남, 2007; 양옥경, 김연수, 2007; 이기영 외, 2009).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배우자, 가족, 주변 사람들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정서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예방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김현실(2011)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가 사회적 지지보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보적·물질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 또는 지지의 양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가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의미한다. 우울의 또 다른 예측변인으로 이정희(2013)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언급하고 있으며, 김민정(2011)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을, 지은진 외(2012)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서적 의사소통을 언급하였다. 이 때 우울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변수로(노충래, 김서희,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은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불안, 우울,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을 만큼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부정적 정서는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다문화가정의 가족해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임혁, 2010)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심리적 문제 혹은 정신건강 수준을 반드시 파악하는 것은 긍정적 정서 및 특성을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현실화하도록 돕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에 관한 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에게 권한이나 권력을 부여하다’. ‘능력을 주다’,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적용 분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논의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모델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하고 무력감을 약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Gutierrez(1990)는 임파워먼트의 세부과정으로 자기효능감과 집단 의식(group consciousness)의 증진을 통해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즉 ‘자신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과 ‘자발적 참여집단에서의 경험을 통한 사회적 관점의 형성’을 의미하는 지역사회활동이 자존감 향상과 무기력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무력감을 조장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그 상황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상실된 통제력을 회복하여 취약성 및 무력감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초점이 된다. 최근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개인의 임파워먼트 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미옥, 2005; 김봉선, 2010)가 나오고 있어, 임파워먼트의 효과에 관한 언급이나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임파워먼트는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가 가지는 변인으로(최명민, 이기영, 엄태완, 2006; 어용숙, 김문정, 2009) 임파워먼트란 무력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향상은 신체적 상태 향상, 심리적 안정,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효빈, 2001). 즉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부적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임파워먼트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화시키고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영역에서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Parsons, 1999). 예컨대,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해 온 대상자들에게 임파워먼트가 구체적인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킨다는 점에 근거하여(Spiretzer, 1995; Conger & Kanungo, 1998; East, 1999), 오정영(2010)은 자활수급자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것이 빈곤탈피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정숙희(2010)는 임파워먼트가 정신질환 환자의 내면적인 무기력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지혜(200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임파워먼트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명민, 이기영, 엄태완(2006)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는 삶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파워먼트 수준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과 회복태도가 증진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고위험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도 향상되었으며 자살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적응력과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준, 남영옥, 2008). 추가적으로 최정숙, 오지영(2011)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위한 미술활동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임파워먼트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임파워먼트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스스로에게 갖는 신념 또는 자기증진 동기’로 임파워먼트의 향상은 행동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행동적 차원에서 자율성에 근거한 적극적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임파워먼트는 그 과정을 통해 신체적 상태 향상, 심리적 안정,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국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할 수 있다’는 내적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의 증진은 자기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장점을 강화시켜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차원에서의 접근은 사회적 지원 및 연계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임파워먼트의 선행요인

임파워먼트와 낙관성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야기하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믿음을 가지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Seligman, 2004). 즉 낙관성은 역경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도록 하며 낙관적인 시각과 신념에서 비롯된 긍정적

기대와 효율적인 해결책의 모색은 성취와 행복의 원동력이 된다(Peterson, 2000; Seligman, 2004). Scheier 등(1985)은 낙관성을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을 하는 인지적 경향성으로서 희망, 신념과 함께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즉 낙관성은 바람직한 미래를 기대하는 의미 또는 좋은 일은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관성은 자신이 경험한 실패에 맞서 견뎌낼 수 있는 힘 또는 다음 행동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거나 그런 노력을 철회하고 수동적이게 하는 자기-조절(behavioral self-regulat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Seligman, 1991). 따라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포기한다는 점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은 구분된다.

Seligman(2004)은 낙관성을 성격특성이 아니라 귀인양식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는데 (Seligman, 2004) 낙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의 원인이 외부적이고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있다고 귀인하는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내부적이고 포괄적인 사실에 있다고 귀인한다. 이런 귀인양식으로 인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학습된 낙관주의 모델(learned optimism model)에서 낙관성은 귀인양식의 변화를 통해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Seligman, 2004). 즉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생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 원인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귀인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낙관성

이 증진된다고 본다.

선행연구들은 따르면 낙관성은 주관적 안녕감(차경호, 김명소, 2002)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인 자이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과(이영이 외, 2011)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결국 낙관성과 안녕감의 획득 및 유지에 스트레스 사건에 덜 직면하게 하는 심리적 대안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긍정심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Hobfoll, 2002).

많은 연구결과에서 낙관성은 정신건강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은아, 이희경, 2011; Diener, Suh, Lucas, Smith, 1999). 즉 미래의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면 기분이 고양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낙관성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취, 대인관계, 적응력, 긍정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조은아, 이희경, 2011),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차경호, 김명소, 2002). 고등학생의 경우 낙관성이 심리적응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응적 대처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2005; 김정수,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낙관성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비교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엄영미, 1999). 즉 낙관성은 정신건강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임파워먼트 증진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데서 중요성이 있다.

낙관성과 임파워먼트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

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몇몇 사례로 오정영, 정경용(2012)은 자활사업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 정적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는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임파워먼트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관성의 증진은 임파워먼트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이상준(2012)은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낙관성의 효과를 고찰한 결과 낙관성과 임파워먼트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인이 불행한 경험을 딛고 당면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낙관성은 갈등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능력과 관련있다. 더불어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사람 내부의 힘을 찾는데 기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Parsons, 1999)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 것은 이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데 효과적인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다.

긍정심리접근에 따르면 개인의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은 긍정적 특성을 촉진하여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행복으로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ble et, al, 2004). 다시 말해 심각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비롯한 많은 장애들은 부정적인 증상들을

경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들, 성격적인 강점들, 삶의 의미를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심리성향의 핵심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은 건강한 심신기능을 증진하고 정신병리 질환을 예방하며 성취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Hobfoll, 2002).

Ryff(1989)는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삶의 질의 향상이 단지 행복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김명소 외, 2001).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좋은 또는 바람직한 삶(good life)에 관한 임상, 상담, 그리고 발달 심리학에서의 여러 이론들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Ryff(1989)는 여러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여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용어로 적립하였다. 이 6개의 차원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포함하고 있다(김명소 외, 2001). 여기서 자아수용이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수용 능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상황에서의 자신을 회피하기보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율성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자율성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

을, 삶의 목적은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미하며 개인적 성장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6가지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판단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인 동시에 성격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차경호, 1999).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에 대한 검증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그 예로 공영길(2009), 김현옥(2010), 이옥형(2012)은 서양의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 도출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이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애착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윤희(2009)는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심리적 안녕감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하위요인별로는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전체변인에서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희망, 행복수준, 학교 생활적응, 인정과 관심, 학교수업 적응,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은우, 2005; 김남희, 2006).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관적 안녕감의 3요인(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성과 환경통제력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은 낮은 상관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관련하여 김현실(2011)은 우울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 자신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를 주목하여 사회적 지지보다 영향력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이 자기통제력,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애착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공영길, 2009; 김현옥, 2010; 이옥형, 2012).

이옥형(2012)은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사건에 덜 직면하게 하고 직면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며 손실된 내적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심리적 안녕감을 포함한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한 적응의 기초가 되며, 스트레스의 효과를 중재하고 우울함에 저항할 수 있게 한다(Beck, 1985; Peterson & Seligman, 2004). 결국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불안, 우울,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완화를 위해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 혹은 긍정적인 스키마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화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효능감, 긍정적 자기인식,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같이 개인적 변화로부터 환경까지의 전반적인 안녕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건강한 심신기능을 증진하고 정신병리 질환을 예방하게 해주기도 하며, 성취면에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Hobfoll, 2002). 이는 임파워먼트가 개인내적 변화와 더불어 대인관계 및 적극적 사회참여까지로 그 영역을 설명하는 부분과 유사한 맥락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오정영, 최웅용(2011)은 임파워먼트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요인이 임파워먼트를 증진시켰음을 입증하였으며 유사하게 오정영, 정경용(2012)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 중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이 임파워먼트와 정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봤을 때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은 임파워먼트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출신국가별, 거주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층표집에 의해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출신국가별로 번역·감수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시기는 2012년 7월 2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배부된 400부의 설문지 중 총 38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36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도구

낙관성 척도

낙관성을 측정하고자 Svheier, Carver와 Bridges(1994)가 제작한 삶의 지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신현숙(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기

질적 낙관성을 측정하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측정 문항은 3개의 긍정적 진술문항(문항 1, 4, 10)과 3개의 부정적 진술문항(문항 3, 7, 9) 그리고 나머지 문항 4개의 모호문항(문항 2, 5, 6, 8)은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삽입된 것이다.

문항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고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까지다.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고 모호한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Scheier와 그의 동료들 (1994)의 연구에서 전체척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78이며,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8로 나타났다.

심리적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등(2001)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WBS의 답지는 6개 차원을 포함하는 총 46문항과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2, 4, 6, 7, 9, 10, 11, 12, 16, 18, 20, 21, 22, 23, 26, 27, 33, 34, 36, 40, 41, 45, 46)은 역산하였다. 6개 차원의 하위변인은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수용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 척도

임파워먼트는 Rogers 등(1997)이 개발하여, 김은영(2001)이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성내용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무기력-힘, 지역사회 활동 및

자율성 등 4개의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Bandura, 1977), 무기력-힘은 '적극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확립시켜 나가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활동 및 자율성은 '집단의식의 형성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관계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영, 2001). 자기효능감 8문항(7, 8, 9, 12, 13, 14, 18, 23), 자아존중감 6문항(1, 2, 3, 4, 5, 6), 무기력-힘 5문항(10, 11, 15, 16, 17),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 4문항 (19, 20, 21, 22) 등 총 23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의 경우 30대가 201명으로 54.5%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90명으로 24.4%, 20대가 78명으로 21.1%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35.22세로 나타났다. 출신국가의 경우는 중국이 224명으로 50.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이 69명으로 18.7%, 필리핀이 30명으로 8.1%, 일본이 27명으로 7.3%를 차지하였으며, 태국이 15명으로 4.1%, 기타가 4명으로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연수의 경우 7~10년의 경우 107명으로 29.0%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4~6년의 경우가 101명으로 27.4%로 뒤를 이었으며, 11년 이상이 84명으로 22.8%를, 1년~3년 68명 18.4%을 차지하였고, 1년 미만은 9명으로 2.4%를 차지하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구 분 | 변수 | N | % |
|--------|--------|-------|------|
| 연령 | 20대 | 78 | 21.1 |
| | 30대 | 201 | 54.5 |
| | 40대 | 90 | 24.4 |
| | 평균 | 35.22 | |
| 출신 국가 | 중국 | 224 | 50.7 |
| | 베트남 | 69 | 18.7 |
| | 필리핀 | 30 | 8.1 |
| | 일본 | 27 | 7.3 |
| | 태국 | 15 | 4.1 |
| | 기타 | 4 | 1.1 |
| 결혼 연수 | 1년미만 | 9 | 2.4 |
| | 1년~3년 | 68 | 18.4 |
| | 4~6년 | 101 | 27.4 |
| | 7~10년 | 107 | 29.0 |
| | 11년이상 | 84 | 22.8 |
| 결혼 유형 | 연애 | 33 | 8.9 |
| | 아는사람소개 | 94 | 25.5 |
| | 결혼중개업체 | 225 | 61.0 |
| | 기타 | 17 | 4.6 |
| 학력 | 초졸 | 9 | 2.4 |
| | 중졸 | 81 | 22.0 |
| | 고졸 | 212 | 57.5 |
| | 대졸 | 62 | 16.8 |
| | 대학원졸 | 5 | 1.4 |
| 배우자 학력 | 초졸 | 5 | 1.4 |
| | 중졸 | 31 | 8.4 |
| | 고졸 | 246 | 66.7 |
| | 대졸 | 79 | 21.4 |
| | 대학원졸 | 8 | 2.2 |

(계속)

| 구 분 | 변수 | N | % |
|--------|-------|-----|------|
| 배우자 직업 | 개인사업 | 76 | 20.6 |
| | 회사원 | 92 | 24.9 |
| | 농수축산업 | 59 | 16.0 |
| | 전문직 | 18 | 4.9 |
| | 서비스업 | 42 | 11.4 |
| | 일용직 | 55 | 14.9 |
| 본인 직업 | 기타 | 27 | 7.3 |
| | 가정주부 | 233 | 63.1 |
| | 개인사업 | 9 | 2.4 |
| | 회사원 | 27 | 7.3 |
| | 농수축산업 | 41 | 11.1 |
| 자녀수 | 전문직 | 9 | 2.4 |
| | 서비스업 | 34 | 9.2 |
| | 기타 | 16 | 4.3 |
| | 0명 | 17 | 4.6 |
| | 1명 | 126 | 34.2 |
| | 2명 | 186 | 50.4 |
| | 3명이상 | 40 | 10.8 |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형은 결혼중개업체의 경우가 225명으로 6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는 사람소개가 94명으로 25.5%를, 연애가 33명으로 8.9%이며, 기타 17명으로 4.6%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고졸이 212명으로 57.5%이며, 중졸이 81명으로 22.0%이며, 대졸이 62명으로 16.8%, 초졸이 9명이 2.4%, 대학원졸이 5명이 1.4%로 나타났다. 배우자학력으로는 고졸이 246명으로 66.7%이며, 대졸 79명으로 21.4%이며, 중졸 31명으로 8.4%, 대학원졸이 8명이 2.2%, 초졸이 5명이 1.4%로 나타났다.

배우자직업은 회사원이 92명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업 76명으로 20.6%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으며, 농수축산업이 59명으로 16.0%를, 일용직이 55명인 14.9%, 서비스업이 42명인 11.4%, 기타 27명인 7.3%, 전문직 18명인 4.9%로 나타났다. 본인직업은 가정주부가 224명으로 63.1%로 나타났으며, 농수축산업 41명으로 11.1%이며, 서비스업 34명으로 9.2%, 회사원 27명으로 7.3% 기타 16명 4.3%, 개인사업과 전문직이 각각 9명으로 2.4%를 차지하였다. 자녀수는 2명이 186명으로 50.4%를 차지하였으며, 1명이 126명으로 29.2%을, 3명이상이 40명으로 10.8%로 나타났다.

자기효능, 지역사회활동의 경우 서로 간 모두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력-힘의 경우이 지역사회활동과 빼고 모든 요인들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수용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r=.89, p<.001$), 긍정적 대인관계($r=.86, p<.001$), 삶의 목적과 낙관성($r=.83, p<.001$), 자아존중감($r=.83, p<.001$), 개인적 성장($r=.81, p<.001$), 지역사회활동($r=.78, p<.001$)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무기력-힘의 경우는 지역사회활동을 빼고 모든 요인들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력-힘($r=-.22, p<.001$)으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표 2는 변수 간 상관분석결과이다.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낙관성,

집단 간 종속변수 차이

다음은 종속변수에 따른 출신국가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의 경우 국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기

표 2. 상관분석 결과

| | b1 | b2 | b3 | b4 | b5 | b6 | c0 | y1 | y2 | y3 |
|------------|--------|--------|--------|--------|--------|--------|--------|-------|--------|------|
| 자기수용 | 1 | | | | | | | | | |
| 긍정적대인관계 | 0.86* | 1 | | | | | | | | |
| 자율성 | 0.71* | 0.71* | 1 | | | | | | | |
| 환경에 대한 지배력 | 0.89* | 0.85* | 0.72* | 1 | | | | | | |
| 삶의 목적 | 0.83* | 0.85* | 0.75* | 0.87* | 1 | | | | | |
| 개인적 성장 | 0.81* | 0.82* | 0.68* | 0.79* | 0.84* | 1 | | | | |
| 낙관성 | 0.83* | 0.81* | 0.69* | 0.84* | 0.83* | 0.79* | 1 | | | |
| 자기효능감 | 0.40* | 0.31* | 0.32* | 0.47* | 0.43* | 0.28* | 0.40* | 1 | | |
| 자아존중감 | 0.83* | 0.80* | 0.69* | 0.85* | 0.82* | 0.72* | 0.83* | 0.57* | 1 | |
| 무기력-힘 | -0.22* | -0.26* | -0.18* | -0.17* | -0.20* | -0.23* | -0.16* | 0.23* | -0.16* | 1 |
| 지역사회활동 | 0.78* | 0.74* | 0.68* | 0.80* | 0.77* | 0.69* | 0.76* | 0.54* | 0.81* | 0.02 |

타의 경우가 다른 국가와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그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력-힘의 경우도 자기효능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회활동의 경우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같았으며, 필리핀, 태국, 기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필리핀과 태국이 두 그룹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집단 간 종속변수 차이

| 종속변수 | 국가 | M | SD | Duncan |
|--------|-------|--------|---------|--------|
| 자기효능감 | 중국 | 2.9581 | .36002 | a |
| | 일본 | 2.9769 | .25248 | a |
| | 베트남 | 3.1232 | .43380 | a |
| | 필리핀 | 3.0500 | .35294 | a |
| | 태국 | 3.0000 | .27549 | a |
| | 기타 | 3.0625 | .38864 | a |
| | 자아존중감 | 중국 | 2.4754 | .96914 |
| 일본 | | 2.1914 | .66136 | a |
| 베트남 | | 2.6981 | .90174 | a |
| 필리핀 | | 2.7000 | .99558 | a |
| 태국 | | 2.4222 | .85650 | a |
| 기타 | | 3.4167 | .51819 | b |
| 무기력-힘 | 중국 | 3.2482 | .46220 | a |
| | 일본 | 3.3407 | .32730 | a |
| | 베트남 | 3.1449 | .43235 | a |
| | 필리핀 | 3.2467 | .40235 | a |
| | 태국 | 3.3067 | .31045 | a |
| | 기타 | 3.4500 | .41231 | a |
| 지역사회활동 | 중국 | 2.4944 | .94982 | a |
| | 일본 | 2.3241 | .86273 | a |
| | 베트남 | 2.7138 | 1.01846 | a |
| | 필리핀 | 2.8083 | 1.02487 | ab |
| | 태국 | 2.5667 | .91840 | ab |
| | 기타 | 3.4375 | .68845 | b |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자기효능감과 낙관적 시각 및 미래에 대한 통제·정당한 분노요인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자기효능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자기효능감 요인은 설명력 (R^2)은 27.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은 각각 자기효능감 요인에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그리고 긍정적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 요인에 부(-)^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자율성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 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성의 경우는 자기효능감 요인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기효능감 요인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회귀분석 결과 $R^2 = 0.277$

| 변수 | 하위척도 | β | SD | t | p-value |
|------------|------------|---------|-------|----------|---------|
| 심리적 안정감 | 자아수용 | 0.131 | 0.038 | 3.28*** | 0.001 |
| | 긍정적대인관계 | -0.123 | 0.034 | -3.65*** | 0.001 |
| | 자율성 | -0.009 | 0.042 | -0.21 | 0.835 |
| | 환경에 대한 통제력 | 0.215 | 0.048 | 4.48*** | 0.001 |
| | 삶의 목적 | 0.142 | 0.041 | 3.49*** | 0.001 |
| | 개인적 성장 | 0.139 | 0.042 | 3.28*** | 0.001 |
| 낙관성 | | 0.045 | 0.042 | 1.07 | 0.287 |

* $p < 0.1$, ** $p < 0.05$, *** $p < 0.01$

표 5. 자아존중감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회귀분석 결과 $R^2 = 0.782$

| 변수 | 하위척도 | β | SD | t | p-value |
|------------|------------|---------|-------|---------|---------|
| 심리적 안정감 | 자아수용 | 0.155 | 0.053 | 2.90** | 0.004 |
| | 긍정적대인관계 | 0.075 | 0.047 | 1.59 | 0.112 |
| | 자율성 | 0.077 | 0.059 | 1.31 | 0.191 |
| | 환경에 대한 통제력 | 0.300 | 0.067 | 4.45*** | 0.001 |
| | 삶의 목적 | 0.178 | 0.057 | 3.12** | 0.002 |
| | 개인적 성장 | 0.160 | 0.06 | 2.69** | 0.007 |
| 낙관성 | | 0.307 | 0.059 | 5.22*** | 0.001 |

* $p < 0.1$, ** $p < 0.05$, *** $p < 0.01$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자아존중감은 설명력(R²)은 78.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은 각각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율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먼트 중 무기력-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무기력-힘은 설명력(R²)은 7.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중 자아수용은 무기력-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대인관계는 무기력-힘에 부(-)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자율성의 경우에는 무기력-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무기력-힘에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경우에는 무기력-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낙관성의 경우는 무기력-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무기력-힘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이 임파워

다음은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이 임파워

표 6. 무기력-힘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의 회귀분석 결과 R² = 0.075

| 변수 | 하위척도 | β | SD | t | p-value |
|------------|------------|--------|-------|---------|---------|
| 심리적 안정감 | 자아수용 | -0.080 | 0.051 | -1.57 | 0.118 |
| | 긍정적대인관계 | -0.133 | 0.045 | -2.95** | 0.003 |
| | 자율성 | -0.024 | 0.056 | -0.42 | 0.673 |
| | 환경에 대한 통제력 | 0.139 | 0.065 | 2.15* | 0.032 |
| | 삶의 목적 | 0.001 | 0.055 | 0.03 | 0.980 |
| | 개인적 성장 | -0.063 | 0.057 | -1.10 | 0.273 |
| | 낙관성 | 0.081 | 0.056 | 1.43 | 0.153 |

* p<0.1, ** p<0.05, *** p<0.01

표 7.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의 회귀분석 결과 R² = 0.683

| 변수 | 하위척도 | β | SD | t | p-value |
|------------|------------|--------|-------|---------|---------|
| 심리적 안녕감 | 자아수용 | 0.163 | 0.066 | 2.47* | 0.014 |
| | 긍정적대인관계 | 0.024 | 0.058 | 0.42 | 0.677 |
| | 자율성 | 0.215 | 0.073 | 2.95** | 0.003 |
| | 환경에 대한 통제력 | 0.291 | 0.084 | 3.49*** | 0.001 |
| | 삶의 목적 | 0.125 | 0.071 | 1.77 | 0.077 |
| | 개인적 성장 | -0.068 | 0.074 | -0.92 | 0.357 |
| 낙관성 | | 0.228 | 0.073 | 3.14** | 0.002 |

* p<0.1, ** p<0.05, *** p<0.01

표 8. 임파워먼트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의 회귀분석 결과

| 변수 | 하위척도 | 자기효능 | 자아존중감 | 무기력-힘 | 지역사회활동 |
|------------|------------|------|-------|-------|--------|
| 심리적 안녕감 | 자아수용 | + | + | | + |
| | 긍정적대인관계 | - | | - | |
| | 자율성 | | | | + |
| | 환경에 대한 통제력 | + | + | + | + |
| | 삶의 목적 | + | + | | + |
| | 개인적 성장 | + | + | | |
| 낙관성 | | | + | | + |

먼트 중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은 설명력(R²)은 6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은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긍정적 대인관계는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

성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경우에는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삶의 목적도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개인적 성장의 경우에는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낙관성의 경우는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사회적 문제는 개인은 물론 그들의 자녀, 사회 전반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각 변수들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낙관성, 자기효능감, 지역사회활동 등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수용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r=.893, p<.001$), 긍정적 대인관계($r=.856, p<.001$), 삶의 목적과 낙관성($r=.832, p<.001$), 자아존중감($r=.827, p<.001$), 개인적 성장($r=.814, p<.001$), 지역사회활동($r=.776, p<.001$)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무기력·힘의 경우는 지역사회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기력·힘을 제외한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기효능감, 지역사회활동, 낙관성의 변수는 서로 간 모두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아수

용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민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낯선 곳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인 새로운 경험과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무기력·힘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자아수용이나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통제력 등의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집단 간 종속변수 차이를 살펴보면, 출신국가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국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기타의 경우($M=3.0625, SD=.38864$)가 다른 국가와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그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력·힘의 경우도 중국($M=3.2482, SD=.46220$)이 높은 편이나 대체적으로 큰 편차 없이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활동의 경우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같았으며, 필리핀($M=2.8083, SD=1.02487$), 태국($M=2.5667, SD=.91840$), 기타($M=3.4375, SD=.68845$)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필리핀과 태국이 두 그룹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출신국가 대부분이 동양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집단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신국가별 차이에 대한 문제 이전에 다문화가정 어머니

들이 처한 현재의 특수한 상황적 문제가 더욱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자기효능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자기효능감 요인은 설명력(R^2)은 27.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어용숙, 김문정, 2009)와 일치한다. 또한 자율성과 낙관성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율성의 경우 비록 주체적인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새로운 환경 속에 낯선 이들과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와 가치 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 의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과 낙관적 시각 및 미래에 대한 통제·정당한 분노요인에 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 대인관계 영역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과반수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이며,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일반 기혼여성들에 비해 이웃 등 국내인과 충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언어 등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같은 출신국의 여성들로만 구성된 비교적 좁은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자아존중감의 설명력(R^2)이 78.2%를 나타내었다. 즉,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 낙관성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중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부분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연구결과(최정숙, 오지영, 2011)와 유사하며, 낙관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점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취, 자아존중감, 적응력, 긍정정서에 낙관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조은아, 이희경, 2011).

다섯째,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무기력-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무기력-힘은 설명력(R^2)은 7.5%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즉, 심리적 안녕감 중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무기력-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안녕감 중 긍정적 대인관계는 오히려 무기력-힘에 부정적(-)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 낙관성의 경우에는 무기력-힘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긍정적 대인관계가 이들의 무기력-힘과 같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속적 대인관계 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김도희,

이경은, 2010),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의 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심리적 안녕감 및 낙관성이 임파워먼트 중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은 설명력(R²)은 68.3%의 설명력을 가진다. 즉, 심리적 안녕감 중 자아수용,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과 낙관성은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안녕감 중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성장의 경우에는 지역사회활동 및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모든 요인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적합한 상황을 선택하고 환경과 외부활동을 잘 통제,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 및 태도인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요인에 관계없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자아수용과 삶의 목적은 임파워먼트 4개 요소 중 3개 하위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자율성의 경우 지역사회활동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 안녕감은 임파워먼트의 4개 차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긍정적 자기민음과 자아존중감과 연관된 개념이며, 심리적 안녕감, 낙관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낙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교육 및 상담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Rogers 등의 임파워먼트 관련 척도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살펴보았으나 기존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일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 같이 소수 집단에 대한 관련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실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임파워먼트를 완벽히 반영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측정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다른 개념 및 측정도구와 임파워먼트를 함께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임파워먼트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속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가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을 출신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출신국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수준과 그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세분화된 정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일반가정 어머니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 낙관성, 임파워먼트에 이르는 관계를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일반가정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무기력-힘,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출신국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문화권 출신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양문화권 출신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가지는 심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양문화권 출신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추가로 구성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및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제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는 미흡하였다. 앞으로 후속연구가 누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한국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현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년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6.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교육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순 (2006).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도희, 이경은 (2010). 다문화가정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5(2), 5-25.

김명성 (2009).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8, 6-27.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민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28.

김은경 (2010). 다문화가정 모-자녀의 긍정심리성향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개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영 (2001). 사회적 지지가 빈곤가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 개발원.

김정수 (2008).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5(1), 271-299.

- 김현실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0(2), 188-198.
- 남윤주, 이 숙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27-36.
- 노충래, 김설희 (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에 대한 개인요인 및 사회적 지지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 39-68.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다문화가정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송미경, 지승희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30, 1-89.
- 신현숙 (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12(3), 165-192.
- 안미숙 (2010). 직장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계에 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오옥선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옥선, 김성봉 (2012). 근거이론 페러다임 모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들여다보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235-260.
- 오정영 (2010). 자활사업참여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 박영희, 엄태완, 김현경, 김현아 (2009). 이주난민의 정신건강과 상담. 서울: 나눔의 집
- 이선미,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정희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4), 89-221
- 정숙희 (2010). 정신분열증 환자의 영적 안녕 정도에 따른 임파워먼트와 회복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59(2), 199-224.
- 조은아, 이희경 (2011). 낙관성/비관성이 대학생활 적응 및 긍정/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351-374.
- 조인주, 현안나 (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77-206.

- 지은진 · 최지명 · 김교현 · 권선중 · 박은진 · 이민규 (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43-252.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8, 575-595.
- 차경호, 김명소 (2002).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3-209.
- 최정숙, 오지영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미술활동활용 집단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9), 319-348.
- 통계청 (2011). <인구통계 연보>, 대전: 통계청.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Carver, C. S. & Scheier, M. F. (1994). Situational coping and coping dispositions in a stressful trans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84-195.
- Chou, W. J. (2010). Maternal mental health and child development in Asian immigrant mothers in Taiwan. *Journal of the Formosan Medical Association*, 109, 293-302.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East, J. F. (2001). Training women for leadership development: An empowerment model. *Regional development dialogue*, 22(1), 66-76.
- Gable, S. L., H. T., Impett, E. A., & Asher, E. R. (2004). What do you when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228-245.
- Gutierrez, L. M. (1990). Working with of color: An empowerment perspective. *A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35(2), 149-153.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307-324.
- Parsons R. J. (1999).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Canadian Scholars' Press Inc.
- Patterson, G. (1982).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family interac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gers, E. S., Chamberlin, J., Elloson, M. L., & Cream, T. (1997). A consumer constructed scale to measure empowerment among users of mental health services. *Psychiatric Services*, 48(8), 1042-1047.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ligman, M. E. P.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Spireitzer, G, M.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442-1465.

1차원고접수 : 2014. 01. 12.

심사통과접수 : 2014. 05. 20.

최종원고접수 : 2014. 05. 25.

Influence on the empowerment of the opt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from multi-culture families

Oh, Ok Sun

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 Lecturer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differences of the empowerment based on the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find out how much influence the opt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ve on the empowerment. Data was collected by surveying the 400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ross the n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garding the differences of the empowerment according to the factors of the demographic systematics, there were the differences of the empowerment depending on how old they are, how long they have been married, how much educated they are, what kind of jobs they have and how many children they have. Secondly, for the influence on the empowerment of the optimistic at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elf-acceptance, the power to control the environment, the goals of life, and the personal background of uprising have an influence on the sense of self-efficiency among other things. Thirdly, the self-acceptance, the power to control the environment, the goals of life, and the personal background of uprising also have an effect on the self-esteem. In addition, the power to control the environment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coming from the psychological well-being have an impact on the lethargy-power. Lastly, the self-acceptance, autonomy, the power to control the environment, the goals of life derived from the opt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fluence the social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ir autonomy.

Key words :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sychological well-being, empowerment